

기독교와 환경오염 (초록)

Christian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s

김 장 외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교수)

※ 이 논문 초록은 89. 10. 16~24에 대구에서 개최한 기독교사상강좌 강의록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자연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얻고 또한 사용한 물질들을 자연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태초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자연의 환경용량이 충분하였으므로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 죄악이 세상에 범람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지구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구환경은 태초의 환경과 홍수 후의 환경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홍수이전의 지구 환경은 궁창위의 물층으로 인해 지구전체가 온실효과에 의해서 동일온도권상에 놓여서 생물체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는데 반해서 홍수 후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8:22)"란 구절대로 환경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살기에 부적당한 환경이 출현하게 되었고 생물체들은 자신의 육

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르게 되었다. 더우기 근래에 들어와서는 급속하게 증가된 인구문제로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어 이러한 공존체제 즉, 생태계의 균형적인 이용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공업화로 인해 많은 화학물질들이 자연중으로 배출되므로써 자연의 완충작용으로 인해 잘 보전되어 온 자연환경이 점차적으로 그 자정작용의 능력을 상실해 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R.Carson 여사는 1962년 "Silent Spring"이란 저서에서 봄이 왔는데 새도 울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침묵의 봄이 왔다고 경고를 하게 되어 세계의 여러나라가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염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대를 흔히 Population, Pollution, Poverty의 3P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아마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연의 파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삶의 편안함을 제공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연에게 서서히 발목을 잡혀가고 있다. 이렇듯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우리가 자연에게 발목을 잡혀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1. 인구의 급속한 증가 (Overpopulation)

식량부족 현상, 주거환경문제

2. 환경오염 문제 (Environmental Pollution)

1) 대기오염 - 대기오염 물질의 기류에 따른 이동, 산성비, 분진,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Oxidant-PAN

Meuse 제곡 사건, London smog 사건

2) 수질오염 - 생물농축현상 - 중금속(미나마타병: 수은, 이따이이따이병:카드뮴)

농약(DDT, BHC, Drin 계)

부영양화, 기름오염, 열오염, 식수오염

미국 오대호, 소련 바이칼호, 영국의 Thames 강

3) 토양오염 - 각종 오염물질의 집적지 - 작물체에 흡수, 식품오염

●

3. 자원의 고갈 문제 (Depletion of Resource)

보존(Conservation), 재이용(Reuse), 대체(Substitution)

4. 지구상태의 변화(Change of the Global Condition)

이산화탄소의 증가 - 지구기온의 상승, 오존층의 파괴

비록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환경오염의 원인들로 인하여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라기 보다는 자연의 수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치 인간들은 자연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인간들이 알고 있는 바가 너무나 적고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후 인간들에게 잘 보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불로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이 지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이미 너무 늦어 버린 것인지는 몰라도 늦었더라도 Spinoza 와 같이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자연의 회복과 보전에 전인류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나라에서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고 여러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